

학부모 10시 출근제·AI당지기·심야어린이병원…

‘최초 시행’ 광주시 정책들, 전국 모델로 확산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 해결 집중…벤치마킹 잇따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국내 1호’ 혁신정책들이 대한민국 행정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부터 AI 당지기,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 광주다움 통합돌봄, 보행안전 현수막 게시대 등 광주시가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 노력들이 전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출

범 이후 교육·복지·의료·노동·안전 등 시민 삶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AI 당지기’ 도입은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야간 당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들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 크게 기여했다.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인공지능(AI) 시스템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도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해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통령 지시 사항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자녀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이는 유연근무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매김하며 수원시, 경북도, 전북도 등 다른 지자체가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4년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우수정책으로 소개되기도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연령, 소득, 질병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보편적 돌봄 정책으로, 초고령화 사회 대응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아 의료서비스를 결합해 ‘생활 지원’과 ‘치료·회복’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3세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발전해 의료, 요양, 주거, 식사, 이동 지원 등 맞춤형 통합 돌봄을 제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특히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8월 6일 광주를

찾아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살펴보고도 했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마련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부모의 불안을 덜어주는 등 필수 의료 서비스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할 필수 의료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침 식사를 거르기 쉬운 근로자들에게 저렴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근로자 조식 반값 서비스’는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NEWS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이밖에도 틈새돌봄 시책인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보행 안전을 위한 ‘현수막 게시대’ 설치,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새 출발 응원금’ 사업, 금융취약계층 채무조정비용 지원사업 등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으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 행정’이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혁신 정책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강기정 시장, 특별재난지역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수해복구 현장점검
광산구 어룡동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과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8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광산구 어룡동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찾아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과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국제농업박람회 퀴즈 풀고 입장권 받으세요

광주·전남 주요 행사장서 ‘IAE 로드 퀴즈쇼’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는 10월 개최되는 2025국제농업박람회(이하 ‘2025국제농업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전남과 광주 주요 행사장 등에서 ‘IAE(International Agricultural Exhibition) 로드 퀴즈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가족, 청소년, 장애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현장에서 즉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 퀴즈쇼 형식으로 기획됐다.

박람회 퀴즈 촬영팀이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 현장과 다중 밀집시설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농업과 미래 기술, 환경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해 정답을 맞힌 시민에게는 2025국제농업박람회 입장권(7000원 상당, 3000원 페이백 포함)을 비롯해 박람회 공식 기념품 등 총 6종의 다채로운 선물이 증정된다.

퀴즈쇼는 지난 1일 정남진 장흥 물축제에서 진행된 첫 행사에 이어 △1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스퀘어 △16일 목포 W 해상쇼 △30일 강진 하맥축제에서 3차례 진행된다.

해당 기간 축제 및 관련 장소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장에서 국제농업박람회 퀴즈 이벤트를 발견하고 참여할 수 있다.

2025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바꾸는 세상,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살리는 K-농업’을 주제로 오는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나주시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남도장터, 매출 240억…공공 쇼핑몰 위상 ‘견고’

전년동기 대비 28% 증가…농·수산물 등 인기

전남도 대표 공공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2025년 상반기 매출 240억 원을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운영 플랫폼 중 선도적 위치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남도장터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남도장터(대표 김경호)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187억 원) 대비 약 28% 증가한 24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요 매출 품목은 농산물 120억 원, 수산물 59억 원, 가공식품 44억 원, 축산물 17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물 매출이 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5% 증가하며 전체 성장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 경기 침체 속에서도 자산물이 빠르게

성장한 데에는 플랫폼 운영 안정화와 입점업체 경쟁력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이번 실적은 광역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공공 쇼핑몰 기준으로는 상위권 성과에 해당하며, 향후 남도장터가 추진 중인 시군물 연합체계가 본격화될 경우 플랫폼 경쟁력과 운영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도장터는 고객센터(CS) 분야에서도 공공 쇼핑몰로서의 신뢰도 제고에 힘을 쏟고 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품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고객 불만이 반복되는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운영위 회의를 통해 제재를 가하는 등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제품 불량, 발주 지연, 허위 송

장 입력 등 소비자 기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반복 민원 발생 업체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와 함께 판매 중단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김경호 대표는 “남도장터는 단순한 매출 중심의 플랫폼이 아닌,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전남 대표 공공 쇼핑몰로 거듭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입점업체 교육과 품질관리 강화 등을 통해 유통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여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도장터는 하반기 집중호우, 폭염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차질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기획전 확대와 할인 판매를 통해 물가 안정과 매출 성장은 물론, 지역 농어가와 소상공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AI사업단, ‘컴퓨팅 자원 사업’ 이용자 모집

초거대 AI 모델 개발 촉진…AI 산업 생태계 확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2025년 지역 인프라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 이용자를 모집한다.

10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에 따르면 지역 기반의 AI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AI 산업 융합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광주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추진 중인 ‘2025년 지역 인프라 기반 컴퓨팅 자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 제품·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

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2025년 추정(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96억원 규모의 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충 예산을 기반으로 추진된다.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 모델 개발이 가능한 HPC(초고성능 컴퓨팅) 환경과 엔비디아(NVIDIA)의 최신 AI 가속기 ‘H100’ 등이 지원돼, AI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혁신 서비스 개발 가속화가 기대된다.

이번에 제공되는 자원에는 엔비디아 H100·A100 기반 GPU 서버, 기본 10TB 스토리지, 주요 AI 프레임워크, 보안 서비

스 등이 포함되며, 기업 및 기관은 별도의 장비 구축 없이도 효율적인 AI 개발과 실증이 가능하다.

이용 대상은 국내 중소기업, 대학, 공공기관, 연구소, 협회·단체 등이며, 한 기업(기관)당 최대 2건까지 신청할 수 있다. 50개 내외의 기관이 선정될 예정이며, 기술 검토와 적합성 평가를 통해 최종 이용자가 결정된다. 자원 종류에 따라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광주시 소재 기업 및 청년기업에는 50%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오는 14일 오후 2시까지 이메일(aica_dc@aicluster.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이용자는 오는 12월까지 컴퓨팅 자원을 지원받게 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고의사고 아닌 고의범죄입니다

10년 이하 징역 / 5,000만원 이하 벌금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 지급

보험사기 신고 : 국번없이 1332

